

4. 수업 비평문(4)

일상생활 속 실천을 위한 생각 나누기 가정수업

소하고등학교 교사 000

자신의 수업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공개하는 일은 심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준비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대학교 학부시절에 배웠던 화려한 교구와 기술들을 사용하여 볼 것이 많은 수업을 공개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평상시의 수업과는 다른 준비되어진 소위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라는 질타를 받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선뜻 수업공개를 하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비평문 작성을 위해 선뜻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신 선생님의 용기에 대한 감탄과 한 번도 참관해보지 않은 가정과 수업을 볼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동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깔끔한 모습의 교실로 일반교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아이들은 모둠활동을 위한 테이블에 네 명씩 모둠을 이루어 앉아있다. 한쪽으로 밀려나있는 교탁의 모습으로 아마도 아이들이 앞에 나와 발표를 할 거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중학교의 모습은 처음 보는데 고등학교와 별 반 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예상보다 아이들은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정적인 모습이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를 것 같아 보인다. 교사는 단발머리에 단정한 차림새로 분명한 발음과 또렷한 목소리가 인상적이며 어느 순간에도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게 응대할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어조를 가지고 있다. 계속적으로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에 학생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교사의 부드러운 톤과 온화한 얼굴 표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은 ‘급식예절’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는 ‘기술·가정의 교수·학습 활동은 교과외 성격에 따라 지식과 기능의 단순한 습득보다는 이를 일상생활에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가정과 교수활동의 목표에 잘 부합된다.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가정시간이면 영양소의 종류라든지 육류 및 어류의 냉장보관 기간 등을 잔뜩 외웠던 것이 생각나는데 식상하지 않은 주제가 신선하고 참신하다.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에서 배우는 지식이 현실과 이어질 수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보다 높아질 것이며 교실 안팎으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다 진정성 있는 배움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실제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영어과의 수업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선생님이 실천이라는 보다 실용적인 주제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풀어나가실지 45분간의 수업을 흥미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학생을 존중하는 안정감 있는 수업

선생님은 45분의 수업 내내 학생들을 존중하는 어투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때때로 ‘-하시겠습니까.’라는 극존칭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너희들’이 아닌 ‘여러분’이라고 높이는 말투에서 학생들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며 담임선생님이 아니신 데에도 ‘우리’, ‘우리 4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여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계시다. 또한 본인은 ‘선생님’이라고 지칭하시어 다정하고 친절한 선생님의 이미지까지 풍기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사항과 설명에 귀를 잘 기울이며 모든 질문에 응답을 잘하고 있다. 선생님 또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반응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하시며 지속적으로 적절한 상호작용 존재하는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교사 : 응. 자, 우리 4반에 급식..실에서 일어나는 행동 중에서 보기 안 좋은 행동 다섯 가지를 그렇게 정리했었는데, 여러분! 같이 정리한 거니까 내용이 같겠죠? 네, 아마 5위는 조금 다르게 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1위가 뭐라고요?
학생 : (다같이) 새치기.

뿐만 아니라 모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만화 만들기, 동영상, 손 편지 등 다양한 재료를 제시하고 모둠별로 마음에 드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스타일을 고려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학습지에 모둠활동을 위한 여백을 만드신 점에서는 수업 전 모둠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상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 교사가 계획한 수업에 대해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점은 배분된 포스트잇의 장수에서도 나타나는데 네 명의 학생에게 세장의 포스트잇을 나누어주어, 한두 명만 참여하거나 혹은 한 사람당 한 가지씩 포스트잇에 쓰고 논의의 과정 없이 발표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모둠활동을 여러 번 진행해보신 교사의 연륜과 경험이 묻어나는 부분이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은 동영상보기에서 급식개혁안의 순위를 정하고 캠페인 제작물을 만든 후 결과를 예측해보는 순서로 비교적 뚜렷하고 안정적이며 교사는 엉뚱한 아이들의 반응들에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업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진지한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 : 우리의 급식개혁안은 음~~ 새치기 하지 않기 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잠깐 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줄을 잘 서기로 할까요?

학생 : (몇 명의 학생) 네에~

교사 : 줄을 잘 서기 괜찮아요? 자 줄을 잘 서기 안에는 새치기 하지말자는 의미도 들어있고, 몸싸움 하지 말자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개혁안 순위 정하기 활동에서 교사는 이미 희망하는 캠페인의 내용을 염두하

고 학생들이 예상한 답변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리 짜여있는 틀에 맞추려는 모습은 모든 강아지들의 목 끈을 손에 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사의 의도는 수업 전반에서 여러 번 보이는데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지만 급식예절이라는 단순하고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교사의 세세한 것들까지 수정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교사의 계속적인 수정과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발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도 다뤄질 수 있는 단순하고 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여는 생각보다 정적이며, 선생님의 발언은 굉장히 긴 반면에 학생들의 답변을 단답형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교사가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다소 교사중심적인 수업이라는 생각을 들게 하며 특히 5분과 10분 사이에는 3분의 2 이상이 교사의 발화로 이루어져있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듯하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사의 발화 양을 조금 줄였으면 어떨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실생활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실용적인 수업

교사 :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활동을(칠판의 포스트잇을 가리킴) 여러분들이 학습지 정리하는 것을 못한 사람이 보여요. 못한 사람들은 이 활동을 기억해서 자신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 뒷부분에 실천소감, 게시판에 이거 붙인 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써오는 것이 다음시간까지의 과제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수업은 교사가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을 염두하고 구상한 수업이다. 교과서에서 식사예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겠지만 많은 가정교사들이 학생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부분을 현실적인 급식문제와 연결하여 수업에 활용하신 점이 굉장히 신선하다. 특히 도입부에서 조리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훌륭하다. 하지만 여러 차시에 걸쳐서, 급식시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가정적으로 살펴보며 개혁안을 짜고 캠페인 제작물을 만들고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등 서로 관련성 있는 단순한 내용을 너무나 늘어 반복적으로 수업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배워야할 다른 가정교과내용도 많이 있을뿐더러 한 번의 신선한 시도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지만 반복적인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지루하지 않았을까. 다양한 자료와 자유로운 모둠활동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다소 부족했던 수업인 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을 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교사의 발화 양을 줄이는 등 수업을 보다 단순화하고 한

시간에 좀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소위 ‘임팩트가 있는 캠페인 활동’이 되었으면 어 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 교과와 수업 그것도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급이 아닌 중학교 급의 현장을 보는 것은 흥미롭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험 이었다. 끊임없이 나의 교과와 타 교과를 비교하고 그 공통점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학생 통솔력과 교수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수업방 식에 대한 반성 또한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과의 최상의 목표를 염두하고 있 는 이 수업을 통해 내가 평소의 수업에서 단순지식 전달을 위해 의사소통능력의 향 상이라는 교과의 가장 상위 목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 었으며 나아가 보다 실용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영어 과목에는 언어라는 교과의 특성상 다른 교과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며 물론 식사예절에 대한 내용도 등장한다. 영어 교과 시간에 영미문화권과 우리나라의 식사예절을 비교하고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 는 급식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로 캠페인 활동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용기 있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시고 수업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을 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신 오OO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친다.